

국가별 동향



중국

‘다리 4개 닭’ 중국서 발견 “방사능 때문인데 먹어도 된다?”



‘다리 4개 닭’ 이 화제다. 최근 중국에서 다리가 4개 달린 닭이 발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 언론은 “후난성 창사의 한 동네 슈퍼마켓에서 다리가 4개인 닭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밀봉된 냉동 닭 한 마리를 구입했고 집에서 포장을 뜯어보니 엉덩이 부분에 작은 다리 2개가 더 달린 기형닭이었다는 것. 해당 제품을 생산한 양계장측은 다리 4개 닭 발견에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 닭이 방사능과 같은 어떤 요인에 의해 기형으로 태어난 닭 같다.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리 4개 닭’ 발견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리 4개 닭? 징그러워서 저걸 어떻게 먹어”, “기형닭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팔다니”,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진짜 방사능 때문일까? 원인분석부터 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

다. 한편 중국 언론은 “현실적으로 닭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 현재 마트와 공급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독일

신선한 계란 자판기 등장 “닭도 자유롭게 살 권리 있다”



신선한 계란 자판기가 등장해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광장에 등장한 ‘신선한 계란 자판기’는 자판기 안에 살아있는 닭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기상천외한 광경에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자판기 안을 들여다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다행히도 신선한 자판기는 실체가 아니었다. 독일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설치한 신선한 계란 자판기는 ‘윤리적으로 닭을 키우는 농가의 계란을 구입하라’는 일종의 캠페인. 이 단체에 따르면 닭의 68%가 ‘살아있는 계란 자판기’ 못지 않은 좁은 닭장 안에서 오로지 계란을 얻기 위해 사육된다. 한편 살아있는 계란 자판기의 닭들은

캠페인 종료 후 원래 살던 양계농가로 돌아갔다고 알려졌다. 계란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활절 직전 설치된 살아있는 계란 자판기로 많은 이들이 윤리적인 계란 소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살아있는 계란 자판기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살아있는 계란 자판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살아있는 계란 자판기는 현실이다”, “동물에게 자유를 줬으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TN 온라인 뉴스]



## 캐나다

### 작년 닭고기 · 계란 판매량 · 생산량 증가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1월~3월까지 조사한 결과 2011년 닭고기 판매량이 2010년에 비해 1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닭고기 생산량은 2011년 120만 톤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칠면조 고기도 2010년과 비교하여 0.4% 증가했으며 계란 판매량도 2010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 9.2%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0.9% 증가했다고 밝혔다. [ThePoultrySite]



## 태국

### Betagro 그룹 자국 시장 확대에 중점

태국 Betagro 그룹은 올해 총 수익이 작년 19

억 달러(USD)를 기록했지만 이보다 증가한 21억 4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Sanon Liawpairoj 영업부장은 “국내 가금시장은 총 7억 8천 8백만 달러로 보인다. 우리 회사는 지난 몇년 동안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 도계장, 사료분쇄기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수출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국내 가금시장이 유럽과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함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는 국내 시장에 더욱 초점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asian-agribiz]



## 잠비아

### 양계산업단지에 8만 달러 투자

잠비아 산업진흥청 Robert Sichinga 청장은 “현재 양계산업에 매년 8천 달러 이상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잠비아 GDP 42%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잠비아 타임즈에 따르면 잠비아 정부는 국가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축산업에 중점을 둘 것이며 그 중에서도 양계산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잠비아 국민에게 고용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산업진흥청 Stephen Mwansa 대변인은 루사카에서 열린 Aviana Expo 전시회에서 “잠비아의 양계산업은 잠비아인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높은 영양가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ThePoultrySite] **양계**